

# [해양문화유산을 찾아서][6] 옛 등대-⑤재현 사업 이후의 과제

생명력 잃은 해안가 조형물 활용 방안 찾아야

입력 : 2010. 04.09. 00:00:00



▲제주시 건입동에 재현된 김녕 도대불. 건입동은 지난해 3월 '도대불' 5개를 설치한 '등명대 거리'를 조성하고 선포식을 가졌지만 '박물관마을 건입동 만들기'사업으로 진행된 이들 옛 등대를 보기 위해 마을을 찾는 이들은 드물다. /사진=강희만기자

## 제주 '도대불' 근대 등대건축 비해 소박하지만 상징성 지녀 도내 곳곳 다시 세워지는 옛 등대 사연없는 돌 조각품 신세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연대. 옛 군사통신시설로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경의 다른 기지,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져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됐다. 제주에서는 봉수대와 더불어 바다가 보이는 주요 지점에 연대를 세웠다.

제주도민속자료인 방사탑. 지역에 따라 거옥대, 거악, 답대 등으로 불리는 방사탑은 마을에 사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돌탑이다. 마을의 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두 참여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 ▶예측불허 바다 비추던 '희망의 불빛'

'도대불'로 불리는 제주지역 옛 돌등대의 외양은 각각이지만 이 돌과 흡사한 곳이 많다. 층층이 돌을 쌓아올려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빌었다는 공통점도 끌어낼 수 있다.

이중 바다와 직접적 연관을 맺었던 옛 등대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늠하는 유산이다. 고기를 얻기 위해 바다를 이용하고 무역과 전쟁을 위해 바다를 가로질렀던 삶이 과거의 시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어서다.

해양수산부가 냈던 '대한민국 등대100년사'(2004)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 위성항법 장치와 정보 기술의 발달에 의해 등대의 실효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등대는 변덕스러운 바다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의 상징이 되어왔다. 등대건축은 낭만적 분위기와 함께 사나운 바다에 대항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구조물로서 장엄함을 불러일으킨다."

도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도대불'은 근대 등대건축에 비해 소박한 시설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빛의 상징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쉬이 허물어뜨리는 예측불허의 바다 환경에서 '도대불'의 불빛은 곧 희망이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옛 등대를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지닌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제주시 건입동은 1년전 '아름다운 불빛, 등명대 거리'를 조성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인 '박물관마을 건입동 만들기'의 하나로 제주의 돌등대를 실물에 가까운 크기로 재현해놓았다. 고산 도대불, 보목 도대불, 대포 도대불, 애월 도대불, 김녕 도대불 등 5개에 이른다. 재현물은 건입동주민센터, 제주항여객선터미널, 7부두(국제여객선터미널) 주변에 흩어졌다. 이들 옛 등대에선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이 되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대포 도대불

### ▶건입동 '등명대 거리'조성 사업 한계

당시 재현 사업에 참여한 건입동주민자치위원회측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제주어민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의 뜻을 모아 각 마을에 산재한 등명대를 한 곳에 모아 재현하고 100년의 역사를 지닌 산지등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지등대는 1916년에 점등한 근대식 등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등명대 거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건입동은 마을 전체를 야외 박물관으로 만드는 사업과 관련해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국립제주박물관에 이르는 4.7km 구간에서 50여군데 생활문화유적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도대불' 재현물도 탐방 코스에 들어있다. 건입동은 '박물관 마을, 건입동'이란 소책자를 제작해 등명대 거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방문객은 드물다.

건입동 '등명대 거리' 조성 작업에 참여했던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등명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사업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불 밝힌 등명대 주변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곳을 문화공간으로 꾸며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대불'을 다시 세우는 마을이 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산지등대 등 전국에 있는 근대식 등대마다 시설을 이용한 갖가지 체험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주의 돌등대는 생명력 잃은 조형물처럼 해안가에 서 있다. 제주의 '도대불'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근대식 등대가 도입되기 이전에 민간에서 제작한 옛 등대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새롭게 돌아봐야 한다. 등대를 도시홍보 이미지화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부산시처럼 제주도에서도 '도대불'을 세계 바다를 비추던 '희망의 불빛'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힐 순 없는 것일까.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 "빛을 통한 소통의 유적 등명대 활용과 보존을"



넓은 바다위에 떠있는 섬, 제주에는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다. 강인한 제주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녀 이야기, 한라산과 바다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포구 이야기,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던 원 이야기 등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등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 바다까지 강렬한 빛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 관청이 주도하여 건축하였던 현대식 등대였다면, 근해를 중심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던 제주어촌마을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축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던 등대가 바로 등명대(燈明臺)다. 등명대는 근대와 현대로의 전환기에 남겨진 문화재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지만 분명히 제주 역사의 한 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관심속에서 1990년대에 18기였던 등명대가 지금은 10여기밖에 남아있지 않다. 포구를 현대화한다는 이유로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혹은 별다른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철거해버리는 무지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적 가치는 역사적 배경이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것이며 의미가 깊은 것이다. 등명대는 어촌마을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돌 하나하나를 쌓았던 혼(魂)이 담긴 것이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빛을 통한 소통의 유적'으로서 문화재의 가치는 충분히 갖고 있다.

특히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등명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남아있는 등명대를 중심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점등행사를 통해 마을 전체를 공동축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존하는 등명대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등명대에 불을 넣고 근해 조업을 재현하는 어업축제를 한다든지, 등

명대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작은 마을 야시장을 개설 한다든지, 어촌마을의 자원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는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살아 있는 문화자원을 현대에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